

성약역사!

선생 드러내어 증거하여라

작성일 : 2012. 9. 28.(금)

작성자 : 조미경

(금요 성령집회 기도 시간에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.)

\* 성자 주님의 말씀 \*

내 사랑아.

너희 선생 믿지?

(그럼요, 주님! 선생님을 믿습니다.)

어떠한 상황에서도

선생 향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.

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.

네 믿음을 그리스도 나 성자의 믿음 위에 굳게 세워라.

나 성자는 너희 선생을 꿰뚫어 보는 자이며

너희 선생은 영 혼 육으로 나를 맞이한 자이다.

네 선생 향한 믿음이,

나 성자의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.

사랑하는 자야.

선생은 너희의 영 혼 육을 꿰뚫어 보고 있으며

모든 육계도 그러하지만

영계까지도 꿰어 보며

2012년 마지막까지

너희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

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고 있음을 기억하여라.

2013년 섭리사의 완전한 독립!

신약역사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다.

신약시대 나 성자는 나사렛 예수의 육을 쓰고 왔다.

이 시대 성약은 선생 통해

나 성자가 신랑으로 다시 와서 역사하고 있노라.

기억하여라. 선생이다.

2013년 선생을 100% 믿지 못하고

나 성자를 신랑으로 맞지 못하는 자는

성약역사를 갈 수 없음을 알라.

완전히 드러내는 역사다.

선생을 감추지도 숨기지도 않을 것이야.

선생은 나 성자가 재림하여

역사하는 나의 육이다.

땅에서 너희가 그토록 애타게

기다리는 자가 아니냐?

당당하게 드러내며 역사를 펴 나갈 것이다.

비 진리와의 싸움이며, 악한 자들과 싸움이다.

가나안 정복한 여호수아를 보아라.

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

100% 하늘 역사의 땅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.

그는 100% 믿음이 있었기에

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.

그러나 바로 정복한 것이 아니다.

한 족속씩 싸워가며 지혜롭게 기도하며

하늘의 힘을 빌려 승리하지 않았느냐?

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시간이 없어

나에게 태양을 멈춰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

창과 칼에 맞아 죽은 자의 숫자보다

우박에 맞아 죽은 자의 숫자가 더 많았다.

내가 역사하여 이겼다.

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

내가 지시한 방법대로 성 주변을 엿새 동안 돌고

일곱 켤레 함성을 질렀을 때

무너질 것 같지 않은 큰 성도 무너졌느니라.

나의 방법으로 행했을 때 승리하였다.

너희 앞에 무너질 것 같지 않은

큰 성과 같은 생명이나,

민족, 나라가 있거든 기도하며

선생과 함께 삼위의 코치대로 행한다면

불가능이 없을 것이다.

이 시대 성약의 역사를 100% 믿고

내가 선생 통해 왔다는 믿음을 100% 가지며

나를 따라 성약 가나안으로 따라온 자들아.

너희는 반드시 기억하여라.

이제는 정복의 역사다.

신광야 역사는 끝이다.

이제는 가나안으로 완전히 들어간다.

여호수아에게 이른 말처럼  
내 사랑의 성약의 신부  
깨끗한 나의 성약 군대들에게 이르노라.  
“강하고 담대 하라.”  
내가 이 지구촌의 모든 생명을 너희에게 맡기리니  
너희는 오직 나를 믿고 의지하여라.  
성삼위는 오직 선생 통해 역사한다.  
너희 눈에는 세상이 크게 보이고  
너희가 메뚜기 같이 작아 보이느냐?  
아니라.  
세상을 이긴 성자와 네 선생이 진두지휘하니  
이미 이긴 싸움이니라.  
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 
진리의 선한 싸움임을 기억하여라.  
성약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히 외쳐  
모든 비 진리가 무릎 꿇게 하라.  
성약의 진리의 빛이  
온 지구촌을 가득 덮는 역사가 충만하리라.

너희 선생과 함께  
1차, 2차, 3차 밀어붙이면 된다.  
이 땅 모든 생명들에게  
성약 복음의 빛이 비추이는 날까지  
너희를 인도할 것이다.  
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 
성약 복음의 빛을 세상에 강하게 비추어라.  
내가 땅 끝까지 함께하리라.  
사랑하는 자들아.  
선생 드러내어 증거하자.  
나 성자가 이 시대 선생 통해 역사한다고  
선생처럼 신부의 입장으로 성자를 맞아야 한다고  
선생과 나 성자와의 사연을 증거하여라.  
선생 어찌 말씀 받아 왔는지 증거하여라.

사랑한다.  
너희 가운데  
진리의 빛이 가득하길 진정 바라는  
나 성자이니라.